

# 합평 군공항유치위 출범... “무안군 들러리” 반발도

### 유치위 출범 겸 2차 주민설명회 무안이전 확정시 보상 대응차원 합평군 찬성높으면 의향서 제출

합평군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유치위원회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일부 합평 주민은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의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농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지역 내 갈등이 우려된다.

합평군 광주 군공항 유치위원회는 8일 합평군 대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겸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평군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치위원회는 영광원전 피해보상금 배분 사례를 들어 무안으로 군공항이 이전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력 후보지인 무안에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자체가 인접 지역인 합평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 유치위원회는 합평 접경지역에 군공항

을 유치해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방안과 광주 민간공항·군공항을 모두 유치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광주시와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들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무안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합평을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 “합평의 군공항 이전지역 위치를 먼저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나연호 유치위원회 임시상임위원장은 “광주 군공항 유치가 합평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군공항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캠페인과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합평군은 군공항 이전 관련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유치 의견이 다수일 경우 유의의향서를 제출하고, 찬·반 의견이 비등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합평에 이어 지난 7일 영광에서도 주민



합평군 광주 군공항 유치위원회가 8일 대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겸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평군 제공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정부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진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보류 중이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간 유치 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획기적인

정부 인센티브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남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도 차원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켜 인센티브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간재-합평-신재현 기자

### 문화관광 가이드북 증보판 발간 신안군, 관광객 여행 편의 지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한 권에 담은 문화관광가이드북 증보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교재뿐 아니라 관광 상품기획자나 관광객들이 여행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460여 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지역 소개, 문화·관광 명소, 축제, 자전거 여행, 교통, 숙박, 체험관광 등을 총망라했다.

명승에 새로 등재된 섬등반도와 이달의 추천 관광지, 대한민국 정치역사 아카이브, 한반도 평화의 숲, 이색 체험, 권역별 축제 등을 반영했다.

군에서는 가이드북을 문화관광해설사, 내고장 알리미, 섬 코디네이터, 여행사에 배부하고 순차적으로 전국 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매년 관광가이드북 증보판을 발행해 신속·정확한 관광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다국어 스마트 어플도 개발해 스마트 관광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 맥류 생육재생기 현장기술지원 영암군

영암군이 맥류 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생육재생기 이후 관리를 위한 현장기술지원에 나섰다.

8일 영암군에 따르면 생육재생기에는 월동 후 맥류의 새로운 싹과 뿌리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웃거름 사용으로 수당립수를 증가시키고 생육 후기까지 비효 지속기간을 연장해 등숙율을 좋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암군 맥류 생육재생기는 1월 이상고온으로 전·평년보다 이른 2월6일로 판단된다. 이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웃거름을 줘야 효과적이다. 웃거름 적정량은 밀·겉보리·쌀보리의 경우 10a당 요소 10kg, 맥주보리는 요소 4~7kg이다. 사질토양 또는 습해 등으로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두 번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군이 맥류 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생육재생기 이후 관리를 위한 현장기술지원에 나섰다. 영암군 제공

### 649억원 투입 축산업 집중 육성 합평군, 조직개편 전문성 제고

합평군이 축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나섰다.

합평군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49억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축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축산업을 지역경제를 견인할 주축으로 삼기 위해 지난달 조직개편을 실시, 기존 축수산과를 축산과로 개편했다.

군은 축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농가 맞춤형 축산경영력 강화 사업 등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지향적 축산업을 육성하고, 축사악취저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등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에 집중하는 한편, 방역인프라 설치,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가축전염병 제로화를 추진한다.

합평전지한우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축산 농가 육성은 물론 국산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한우 육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합평-신재현 기자

## 완도군,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 육성 나섰다

완도군이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 사업 1단계 성과를 발표했다. 군은 2단계 사업으로 실험 장비를 추가 구축해 해조류 고급화와 일자리 연계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 사업’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는 조선대학교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에서 1단계 사업 추진 성과 보고 및 실험실 장비 구축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춘성 센터장,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및 한국농수산대

학교, 건양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총 160억원을 들여 조선대학교를 주축으로 총 11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해조류 기반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구·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해조류의 기능성 및 유효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식약처 인증 및 사업화 과정을 지원·컨설팅 해줄 수 있게 된다.

사업 1단계의 큰 성과는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를 구축한 것으로 국내 최초 해조류 기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와 유효성 평가·실증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해 해양바이오 육성 기반 시설을 갖춘 점이다.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유효성 실증 센터에 실험 장비를 더 구축하고 소재 개발, 원료 표준화, 유효성 평가, 사업화 지원 등 1단계 사업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완도-최경철 기자

2단계 사업에서는 유효성 실증 센터에 실험 장비를 더 구축하고 소재 개발, 원료 표준화, 유효성 평가, 사업화 지원 등 1단계 사업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완도-최경철 기자

## 합평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맞춤 사업 발굴

합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합평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분야별 실무 워킹숍이 지난 6일과 7일 합평군립미술관에서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킹숍에는 주거, 교통, 복지·의

료, 문화·관광, 경제 등 각 분야별 담당 팀장 4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워킹숍에서 발굴된 사업들을 포함, 앞서 이장 및 부서장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합평-신재현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2022년부터 연 1조원씩 10년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했으며, 관련 업무 팀장으로 구성된 지방소멸대응 추진단을 만들어 부서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합평-신재현 기자

### 윤달기간 화장장 연장운영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해남군은 윤달기간을 맞아 오는 3월 22일~4월 19일 개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남도광역추모공원의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장로 운영시간은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사전예약은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예약은 오는 21일부터 인터넷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개장신고증명서를 가지고 남도광역추모공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해남, 진도, 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2019년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현재 4기의 화장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개원 이후 1만건이 넘는 화장과 봉안당 및 자영장 안치 2962건 등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